

광주여대 양궁 유학생 아와타리 아카네, 일본 양궁 국가대표 선발



일본 여자 양궁 국가대표에 선발된 아와타리 아카네가 광주여대 양궁 명예의 전당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내년 광주세계선수권대회 뛰고 싶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과의 훈련이 성장 원동력
올림픽 꿈위에 도전한 선택...좋은 결실 맺어 기뻐
동계훈련 박차, “예진 선배와의 약속 지키고 싶어”

“국가대표라는 꿈을 이뤘지만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 무대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마지막 도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자 양궁 사관학교’ 광주여대 양궁 유학생 1호 아와타리 아카네(스포츠학과 2)가 일본 여자양궁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지난달 열린 일본 여자양궁 국가대표 2차선발전을 통과한 아카네는 내년 최종선발전에서 노다 사츠키 등 파리올림픽 일본 국가대표 선수들과 3강이 걸린 광주세계선수권대회 출전 티켓을 다툰다.

중학교때 양궁에 입문한 아카네는 광주시양궁협회와 일본양궁협회 우호교류 일환으로 진행된 광주전지훈련에 두 차례 참가하며 광주

와 인연을 맺었다.

양궁 선수로서 큰 꿈을 가진 아카네는 기보배, 최미선, 안산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공부하며 훈련했던 광주여대에 대한 무한한 동경으로 지난해 단짝 친구인 이와이 타카라(스포츠학과 2)와 과감하게 광주여대 양궁 유학을 시작했다.

아카네는 “처음 학교생활은 힘들었다.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훈련량에 지치기도 했다. 하지만 평소 꿈꾸던 올림픽 스타들과 훈련을 함께 한다는 뿌듯함으로 서서히 적응할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도 항상 사소한 질문에도 친절하게 조언해주며 ‘너는 할 수 있어’라는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준 선배 언니들의 응원과 김성은 감독의 맞춤형 지도가 든든

한 힘이 됐다”고 말했다.

최미선과 안산 등 광주는행했던 양궁단은 광주여대 선수들과 함께 훈련장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과의 훈련으로 약점었던 체력을 보강하고, 슈팅 타이밍·강한 멘탈을 연마한 아카네는 “실전에 방불하는 훈련과정에서 선배들이 보여준 슈팅 자세와 흔들림없는 집중력을 보며 양궁 선수로서의 마음이 집을 늘 새롭게 한다. 무엇보다 올림픽 스타들과 함께 한다는 자신감이 지금의 나로 성장시켜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짧은 훈련으로 도전한 일본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1차전에서 탈락했지만 나만의 특권인 올림픽 스타들에게 특별 과외(?)를 받은 올해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강한 정신력을 발휘하며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고 미소지었다.

지난 2일 청주 김수녕양궁장에서 열린 2025 양궁 국가대표 2차선발전을 통과한 최미선, 안산, 오예진(광

주여대)도 안방 세계선수권 출전을 위해 동계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학교 선후배로 가장 각별하게 지내는 오예진은 “후배인 아카네와 훈련 이외에도 학교생활 등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소소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아카네와 내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만나자고 약속도 했다. 함께 사대에 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카네는 “꿈을 이루기 위해 값진 선택을 했고 좋은 결과도 얻었지만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명문팀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더 성장하겠다”며 “아직도 선배 언니들을 보면서 많이 부족함을 느끼지만 꿈꾸던 국가대표가 된 만큼 자신감도 커졌다. 언젠가는 반드시 세계 양궁선수권,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세계무대에 설 수 있도록 매일 매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희중 기자



국제(한·중·일) 청소년스포츠 교류 평가회의에서 공로패 수상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근 문화중 교사, 최민국 배구 지도자, 서계상 수피아여중 교장,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오철안 광주배드민턴협회 전무이사, 이병권 광주축구협회 사무국장, 김창현 광주탁구협회 사무국장. <광주시체육회 제공>

국제 스포츠교류 활성화
스포츠 도시 광주 위상 제고

광주시체육회, 한·중·일 청소년스포츠 교류 평가회의 개최

광주시체육회가 국제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통해 스포츠 도시 광주의 위상을 강화한다.

광주시체육회는 최근 광주시체육회 2층 회의실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과 김대우 대한체육회 청소년체육부장을 비롯해 국제 교류대회 참가 경기임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한·중·일) 청소년스포츠 교류 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의는 지난 7, 8월과 10, 11월 광주와 일본·중국에서 열린 한일·한중 청소년스포츠 교류 성과를 점검

하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체육회는 이 자리에서 성공적인 교류행사를 위해 노력한 경기임원과 지도자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평가회를 통해 청소년스포츠 국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광주시체육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빛고를 꿈나무들이 국제적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청소년스포츠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서서아, 포켓볼 전일본선수권 제패

한국 선수로는 9년 만에 우승

한국 여자 포켓볼 간판 서서아(세계랭킹 12위·전남당구연맹·LG유플러스)가 일본 포켓볼의 역사인 전일본선수권대회를 제패했다.

서서아는 24일 열린 제57회 전일본 포켓볼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왕선통(세계랭킹 31위)을 세트 점수 9-2로 완파했다.

한국 선수가 전일본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현재 여자프로당구 LPB A에서 활약 중인 김가영(하나카드) 이후 9년 만이다.

서서아는 8강전과 준결승전에서 다



서서아 <대한당구연맹 제공>

니 미나, 레이오 오쿠다 등 일본 선수를 상대로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세트 점수 9-0으로 완승해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도 왕선통을 상대로 경기 초반 세트 점수 1-2로 뒤처졌다가 내리 8게임을 따내며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트로피 수집 나선 김도영, ‘일구상’도 수상

최고타자상 영예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슈퍼스타’ 김도영이 ‘2024 뉴트리디데이 일구상’ 최고 타자상을 수상했다.

한국 프로야구 OB 모임인 사단법인 일구회(회장 김광수)는 25일 ‘2024 뉴트리디데이 일구상’ 수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일구대상에 이어 9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KIA 김도영이 올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최고 타자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도영은 최연소 및 최소 경기로 30(홈런)-30(도루)를 달성하는 타격 전

부분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올 시즌을 지배했다. 총 141경기에 출장해 타율(0.347) 3위,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한 OPS(1.067) 1위, 루타(352) 1위, 3루타(10) 1위, 홈런(38) 2위, 안타(189) 3위 등 대부분 공격지표에서 상위권에 자리했다.

특히, 143득점은 단일 시즌 최다 기록이었다. 그의 빼어난 활약 속에 KIA는 7년 만의 정규리그 1위에 이어 통산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달성했다. 또, 프리미어12에서도 홈런 3개를 포함해 OPS(출루율+장타율) 1.503을 기록하며 국제대회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타자다운 활약을 이어갔다.

한편, 프로지도자상은 KIA 홍세완 타격 코치가 수상자로 결정됐다. 홍세완 코치는 올해 타격 코치를 맡아 KIA를 리그 최고의 핵타선으로 만들어냈다. KIA 타선은 타율(0.301), 출루율(0.459), 장타율(0.369), OPS(0.828)에서 모두 1위에 올랐고, 홈런(183)은 삼성과 NC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2024 뉴트리디데이 일구상’ 시상식은 오는 12월1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리베라호텔 3층 베르사이홀에서 진행되며, GOLF&PBA 채널과 뉴미디어 플랫폼인 네이버, IB SPORTS 유튜브 브채널, 카카오톡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주홍철 기자



김도영

<KIA 타이거즈 제공>



박찬호

<KIA 타이거즈 제공>

박찬호, 2년연속 유격수 부문 수비상 수상

“KIA 내야에 뚫린 구멍은 없다” 올 시즌 통산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끈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철벽 유격수’ 박찬호가 2년 연속 수비상을 수상했다.

KBO는 25일 2024 KBO 수비상의 내야수와 포수 부문 수상자를 발표했다. 내야수 부문에서는 1루수 오스틴(LG), 2루수 김해성(키움), 3루수 허경민(KT), 유격수에서는 박찬호(KIA)가 선정됐다. 포수 부문은 박동원(LG)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찬호는 투표 점수 67.5점, 수비 점수 22.5점을 기록해, 총점 합산 결과 90점으로, 82.5점의 오지환(LG)과 78.75점의 박성현(SSG)을 여유있게 제치

고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수비상 유격수 부문 초대 수상에 이어 2회 연속 수상이다.

올 시즌 박찬호는 말 그대로 ‘철인’급 활약을 펼쳤다. 132경기에 출장해 무려 1천120.1이닝을 소화하며 리그 2위의 수비 이닝을 기록했고, 328개의 어시스트로 리그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시즌 내내 내야를 탄탄히 지킨 그의 활약은 팀 통산 12번째 우승의 든든한 초석이 됐다.

수비 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전전 후 맹활약을 펼치며, 팀의 공격 선봉장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

올 시즌 그는 데뷔 후 가장 많은 타석을 소화하며 2년 연속 3할 타율(0.307)

을 기록했고, 도루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공격 지표에서 커리어 하이를 작성했다.

박찬호는 2025 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얻게 된다.

한편, 정규시즌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능력을 발휘한 포지션별 선수에게 시상하는 KBO 수비상은 지난 2023시즌 처음 제정돼 이번이 두 번째 시상이며, 각 구단 감독, 코치 9명, 단장 등 구단 당 11명씩 총 110명의 투표로 결정되는 투표 점수 75%와 수비 기록 점수 25%를 합산하여 수상자가 결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28일 진행되는 KB O 시상식에서 트로피와 함께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주홍철 기자

KPGA 투어 올해 최고의 명장면

지난 5월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SK텔레콤 오픈에서 최경주의 KPGA 투어 최고령 우승의 발판이 된 ‘아일랜드 샷’이 KPGA 투어 올해 최고의 명장면에 뽑혔다.

KPGA 투어는 올해 치러진 KPGA 투어 대회에서 짜릿하고 특별했던 장면 5개를 선정해 25일 발표했다.

최경주의 이른바 ‘아일랜드 샷’은 5개 가운데 맨 앞에 꼽혔다.

최경주의 ‘아일랜드 샷’은 최종일 첫 번째 연장전에서 나왔다. 18번 홀(파4)에서 최경주가 친 두 번째 샷은 그늘에 미치지 못하고 그린 앞을 가로지르는 개울로 향했다.

누구나 물에 빠진 것으로 여겼지만 불은 개울 한 가운데 있는 작은 섬 잔디 위에서 발견됐다.

섬 면적은 성인 남자 두 명이 다리를 벌리고 서면 꼭 찰만큼 작았다.

불이 낙하해서 굴렀다면 물에 빠졌을 텐데 기적처럼 불은 잔디 위에 살포시 앉아 있었다. 최경주는 그 자리에서 세 번 만에 그린에 불을 올렸고 파 세이브에 성공했다.

연장전 상대 박상현의 버디 퍼트가 빗나가서 두 번째 연장전으로 이어졌고, 최경주는 두 번째 샷으로 그린에 올라와 가볍게 파를 지켰지만, 박상현은 파세이브에 실패했다.

54번째 생일날 기적 같은 우승을 차지해 KPGA 투어 최고령 우승 기록을 새로 쓴 최경주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곳에 불이 멈춘 것은 믿기지 않는다”면서 “평생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